

해인사 문화도량 설계 당선작 '풍경의 집합체'



수행과 신행을 한 곳에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사찰 문화'. 해인사가 마침내 그 밑그림을 마련했다. 해인사는 건축가 조성용씨(조성용 도시건축 대표)와 프랑스의 사인 교수미구 시라쿠스 건축대학가 공동설계한 작품 '풍경의 집합체'를 '해인사 신행·문화도량' 설계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해인사는 신행·문화도량을 짓기 위해 설계경기를 열어 작품을 모집했다. 해인사의 신행·문화도량은 재가 불자들의 전용 도량으로 신행과 수행공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찰 문화를 창출한다는

신행·수행공간을 하나로

대법당과 10분거리... 자연스런 연결 구조
 총공사비 2백~3백억, 10월부터 공사 착수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당선작의 도면은 법당, 참선·염불공간, 체험관, 박물관 등으로 구성돼 있다. 신행·문화도량에서 수행과 신행을 함께 할 수 있는 형태다. 게다가 이 신행·문화도량은 해인사 대법당과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어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재가불자들의 수행공간이 분리돼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 모든 사찰이 스님들의 수행공간과 재가자들의 수행·신행 공간이 분리돼 있지 않아 설계경기를 열어 작품을 모집했다. 해인사의 신행·문화도량은 재가 불자들의 전용 도량으로 신행과 수행공간을 하나로 연결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사찰 문화를 창출한다는

창조성을 가미한 형태로 건립된다. 조성용씨는 "전통은 끊임없이 변화하며, 그 변화에 능동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설계의 특징"이라며 "전통사찰 구조를 현대적으로 변용해 자연과 주변 건물과의 조화를 이뤄내면서 모든 구조를 '하나'로 묶어내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공사비만도 200~300억여 원이 투입될 이번 공사는 세부 설계지침을 완성된 뒤 문화재청, 국립공원관리공단, 경남도청 등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착공될 예정이다. 공사기간은 3~4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해인사는 예상하고 있다. 건평만 2천여 평 규모로 옛 해인 초등학교 자리에 건립될 신행·문화도량은 학습회, 강연, 교육, 공연 등을 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과 거주 및 편의시설 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특히 팔만대장경 앞뒤를 실물 크기의 풍판으로 복사한 16만장의 복사본 팔만대장경을 법당의 좌우 벽면에 보관할 계획이며, 법당 명칭도 '팔만대장경 법당'으로 이름붙일 방침이다. 신행·문화도량 코디네이터를 맡고 있는 원철스님은 "새 도량 건립은 사찰문화의 새 모델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며 "불자들이 일반인에 대해 각기 다른 프로그램을 적용시켜 신행·문화도량이 명실상부한 국민의 배움터로 자리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치르는 '영산재' 20일 서울 봉은사(주지 인공) 설법전에서 중요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보존회 주최 '2003년 영산재 이수평가 시연회'가 개최됐다. 사진은 법무 분과에 도전한 미산 스님이 영산재 준비유자 구해 스님을 비롯 심사위원 앞에서 천수바리를 선보이는 모습. 관련기사 5면 사진=박재완 기자

정관개정 등 핵심 또 외면

동국학원 이사회 병원장 선임·직제개편 등 무산

동국학원이 이사회를 열면서 시급한 현안인 불교병원 정관개정의 건을 다분히 의도적으로 처리하지 않아 교계의 반목을 사고 있다. 동국학원(이사장 정대)은 18일 동국대 회의실에서 12명중 4명중 11명의 이사가 참석한 가운데 제 19회 이사회를 개최했으나, 불교병원 정관개정은 또 실패했다. 이사회에서는 2002년 동국대 결산 통과에 이어 동국학원 정관 개정의 건의 상정되기 전 법장, 녹원, 류주형 이사가 차례로 자리를 비우면서 9명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논의자체가 중단됐다. 이로써 불교병원 개원과 관련 병원장 선임과 직원선발을 위한 병원직제개편, 불교병원 법적 근거조항 마련이 무산됐다. 또 정관개정안에 들어있는 총장 정년연장, 동국학원의 장래직장 운영 부동산입대입 등 수익사업 확대 등도 어렵게 됐다. 이밖에도 권노갑 이사 해임 및 동

국대 총동문화 추천 이재장 전 동국대 교수 이사선임의 건은 차기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동국학원의 한 관계자는 "차기이사회는 8월말이나 9월초 열릴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국대 총동문화 추천 이재장 전 동국대 교수 이사선임의 건은 차기이사회에서 다루기로 했다. 동국학원의 한 관계자는 "차기이사회는 8월말이나 9월초 열릴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사회가 열리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김원우 기자 wkim@buddhapia.com

"병원 개원 빨라야 내년 가을께"

홍기삼 東大 총장 취임 100일 간담회

일산 불교병원이 빨라야 내년 가을 개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국대 홍기삼 총장은 17일 취임 100일(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가을이나 2005년 봄에 개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총장은 "불교병원을 하루빨리 개원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며 "교계의 재정적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홍총장은 또 8월 12일 동국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단 발대식 및 100주년 D-1000일 행사를 갖겠다고 밝혔다. 100주년 기념사업단에는 기획, 건축이념구현, 기관관 건립, 학술, 편찬, 행사, 모금 등 7개 분과를 둘 예정이다. 관련인터뷰 3면 김원우 기자

스리랑카 수재민돕기 조계종, 모금활동 나서

조계종 총무원이 사상 초유의 수해를 입은 스리랑카 수재민을 돕기 위한 모금활동을 전개기로 하고 전국본당사와 불교단체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18일 발송했다. 스리랑카는 지난 5월 수해로 60만명의 수재민이 발생했다. 성금은 국민은행(023501-04-004943) 또는 농협(053-01-255568)을 이용하면 된다. 문의는 (02)735-5864 김원우 기자

선학원, 교육분담금 전액 조계종 납부

행자교육 등 각종 교육 참여길 열려

2002·2003년도 교육분담금 전액을 조속한 시일 내에 조계종에 납부키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선

학원은 행자교육을 포함한 조계종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조계종은 지난 4월 임시중앙총회에서 선학원의 권리 보장과 관련한 총무원법 조항을 개정했으며, 선학원도 이사회에서 지난 달말 재단의 교육분담금을 조계종에 납부키로 하는 등 완전한 관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한명우 기자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다 읽으신 후 가까운 이웃에게

현대불교신문은 수행·포교지입니다. 다 보신 뒤에는 버리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에게 주십시오. 신문에 담긴 단 한줄의 말씀이 여러분의 이웃을 제도할 수도 있습니다. 구독 신청 안내 수도권:(02)737-0090 부산:(051)632-0064 대구:(053)768-8008 광주 전남:(062)375-9986 전북:(063)255-2274 대전:(042)489-9300 충북:(043)258-3282 강원:(033)643-5599 동해 삼척:(033)521-6293 영주:(054)634-3429 경남 동부:(055)353-1196 제천:(043)644-4366 경남 서부:(055)547-3469



14일, 범어사 보제루에서는 표정관리, 인사하는 법, 전화 받는 법을 비롯 '서비스'와 '매너'의 개념을 아우르는 친절교육이 열렸다. 경비, 총무소, 원주실, 매표소 직원은 물론 산하 복지기관인 시니어클럽, 금정구사회복지관 등에서 종사하는 다양한 업무 특성을 가진 직원 50여명이 교육대상이었다. 사찰이나 불교의 첫인상과

다름없는 직원들이 공통적으로 갖춰야 할 덕목인 '친절'에 대해 외부강사를 초청, 교육을 실시한 것이다. 범어사 총무원은 물론 산하 복

범어사의 총무원 친절교육

지기관의 직원 50여 명을 한자리에 모아 교육한 것이 처음인데다, 참배객과 이용객들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친절교육을 사찰에서 실시했다는 점에서 신선함

을 던져주고 있다. 이미 일반 기업체에서는 서비스를 푼속처럼 여긴다. 그러나 사찰이나 불교계 유관 단체는 '마음'만을 강조하며 서비스나 매너의

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금정구사회복지관 조수경과장의 말처럼 이번 친절교육은 서비스에 대한 인식전환은 물론 구체적 행동변화를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범어사는 자체 평가를 거쳐, 일년에 한두 차례에 같은 교육을 정례화 할 예정이다. 특히 연관된 주제 하에 더욱 심화되고 체계적인 서비스 강화에 나서겠다는 의지에서 '불교적 서비스'라는 새로운 개념을 정착시키는 시급성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천미희(부산주재지)

천년신비 '핸드 포토' 불교자수 간직하세요

북한 만수대창작사 작품

누구든 원하는 소재·크기로 만들어 드립니다



세계 최고 최대의 예술적 수준을 자랑하는 북한 만수대창작사가 제작한 전통 손자수를 어떤 형태의 주문에도 만족하게 제작해드립니다.



불교자수 특징

- * 단 하나뿐인 명품 세계적 인정
- * 명주실·천연염료 사용... 사진보다 더 사실감
- * 예술적 가치높은 손자수... 시간 지날수록 더 가치
- * 법당 행화·불화로 적격

용도

- * 불화(행화, 불보살도)
- * 불교인물화(역대고승, 종정등스님)
- * 불교성보(탑, 종, 법당, 불상 등)
- * 가족기념사진(결혼, 약혼, 회갑 등)
- * 기업기념사진(창립주초상, 승진, 당선축하외국인선물용등)
- * 고급인테리어소품(호텔, 백화점, 공공건물, 가정집 등)
- * 뜻깊은장면사진(역사적인장면, 기억에 새길경관 좋은 경치등)

주문시 유의사항

- * 머리카락, 눈동자의 동공과 눈썹까지 뚜렷이 표현된 세밀한 사진일수록 좋습니다.
- * 옷의 질감이나 문양이 그대로 표현되므로, 독특한 질감의 의복이나 화려한 의상 일수록 작품이 더욱 돋보입니다.

주문안내

- * 대형 (60cm×80cm) * 중형 (30cm×40cm)
- * 소형 (20cm×30cm)

특별보급 작품 (15×20cm)을 180,000원 특가로 판매합니다.

- 수월관음, 지장보살, 석굴암부처님 불두.
- 만공·한암·효봉·동산·청담·성철스님 등 근세 고승 전영.

※ 소장용·선물용 모두 만족을 드립니다

주문 마하몰 전화 (02)732-1520 팩스 (02)727-0697 www.mahamall.co.kr

